

‘풀뿌리 통일운동 비전과 과제’

북미민주포럼, AOK 정연진 대표 초청 동포간담회

북미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은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대표를 초청, 28일(일) 오후 5시 플러싱 급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풀뿌리 통일운동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통일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정연진 AOK 대표는 2013년부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우먼 크로스(Women Cross) DMZ 행사에 참가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한류대상 국제교류 부문 단체상을 수상한 생활 속 풀뿌리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거주 시민운동가이다. 참석 희망자는 좌석 관계로 사전 연락을 바란다.



AOK 정연진 대표

△문의: 516-697-9840, 516-587-9948



이노비, 마운트사이나이병원 환자 위문 공연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23일 오후 12시30분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 있는 마운트사이나이병원에서 2018년 첫번째 공연의 문을 열었다. 이날 명문 음악학교인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로 투병과 치료에 지친 환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뜻깊은 기회로 많은 좋은 피드백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담당자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다. 환자들이 너무 좋아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공연/후원문의: 이노비 212-239-4438, enobinc@gmail.com (사진제공=이노비)



아시아 여성단체 우먼카인드, 인신매매·불법노동 반대 컨퍼런스

아시아 여성단체인 우먼카인드(Womankind, New York Asian Women's Center)는 19일 인신매매, 불법노동 반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가 인신매매나 불법 노동에 끼치는 여러 영향들을 집중 분석했으며, 우먼카인드에 의해 선정된 노인복지대사들이 참여해 노인의 입장에서 본 인신매매와 불법 노동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212-732-0054 ext.102 (사진제공=우먼카인드)

365일 아시아나 항공 최저가격!

워커힐 여행사와 함께...
www.walkerhilltour.com

중형, 대형 버스대여

201.346.1166 / 718.749.3059 / 212.221.1234 대표:이점마 워커힐여행사

“미리 검진받고 더 건강하게 사세요”

의사+간호사협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무료건강검진

22일 첫 검진 실시

대뉴욕지구 한인사협회(회장 사무엘 조)와 뉴욕한인간호사협회(회장 한경화)는 보편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 한 달에 한번씩 매월 3째주 월요일 퀸즈 플라싱크로스상점에서 무료건강검진 행사 ‘위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단 1월과 2월의 셋째 주는 공휴일인 관계로 검진일은 셋째주 월요일인 1월15일이 아니라 1월22일, 2월19일이 아니라 2월26일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프로그램 이름은 “우리가 한인들을 보살펴드린다”는 의미로 ‘We care’와 ‘Korean’을 합쳐 ‘we care’로 정했다

진료과목은 고혈압, 당뇨, 위장, 간, 치매 등 18개 분야이다

그 첫 무료진료가 22일 실시됐다. 이날 12명의 한인들이 일반내과(박선자,



대뉴욕지구 한인사협회와 뉴욕한인간호사협회는 22일 퀸즈 플라싱크로스상점에서 무료건강검진 행사 ‘위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최송자), 위장내과(조사무엘) 진료와 2

명의 한의사(이수호, 변동연)의 치료를 받았다. 봉사자들도 한방상담을 받고 침

설워켜 상담과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엘머스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연결 하는 방법 등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주최측은 “오늘 상담 숫자는 적게 보이지만 2시간 동안의 진료 동안의 12명은 아주 적당한 인원으로 질이 높은 진료와 치료의 시간이라서 만족하고 감사한 날이었다”고 말하고 “오늘 혈액검사

와 밤모그림을 받은 상담자의 결과는 다음 진료일인 2월26일(월) 결과를 알려준다. 물론 위급한 비정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적으로 연락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2월26일 진료는 ‘손과 발의 건강’에 중점을 둔다. 이날 최인, 김장래 의사가 나와 상담을 한다. 3월에는 알려지 질환과 전신, 4월에는 심장내과 진료

파이낸셜타임스 구독 독려 광고에 ‘김정은’ 등장

베이사이드 한인타운 인근 버스정류장에 부착

뉴욕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김정은 광고’가 등장에 눈길을 끈다.

23일 ‘글로벌웹진’ 뉴스(www.newsroh.com)에 따르면 이 광고는 뉴욕 베이사이드의 엘리펀트 파크 앞에 있는 Q27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고관에 올려졌다. 730에브뉴와 스프링필드 블러바드가 만나는 이곳은 행정구역상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트가든스라는 타운에 있다.

광고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른손을 들고 활짝 웃는 흑백사진을 싣고 가슴 부위에 ‘DEAR LEADER(경애하는 지도자)’라는 흰 글씨를, 아래엔 검은 글씨로 ‘OH DEAR, LEADER(오 저런 지도자여)’라고 단어의 배열을 달리해 풍자(諷刺)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영국의 유명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낸 것으로 광고 하단엔 ‘Don’t settle for black and white. For the full perspective, turn to the FT.’(흑백논리로 만족하지 마라. 충분한 관점을 위해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라)는 글과 해당 언론 웹사이트 주소를 명기했다.

인근 주민 김현태씨는 “며칠전 우연히 지나다 봤는데 왜 이런 한적한 타운에 광고를 올렸는지 모르겠다”면서 “광고문구에 흑과 백이라고 쓴 것을 보니 서방세계에서 흑 또는 악의 상징이 되어 버린 북한 지도자를 이용해 자사 트래픽

을 올리려는 다소 유치한 홍보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888년 영국에서 창간된 경제전문 매체로 유럽 주요 국가들과 미국에서 일간지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일본 니혼게이지사에 매각된 후 디지털판 광고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공식 페이스북에도 ‘흑백논리로 해결하지 마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트럼프와 시진핑 등 주요국 정상들을 통해 홍보하는 게시물(揭示物)이 올라 있다.

뉴욕에 ‘김정은 광고’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월에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노동법개혁을 촉구하는 로비단체 ‘CUF(Center for Union Facts)’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올린 바 있다.

또 2013년 6월엔 맨해튼 남단 한 건물 벽에 보드카 선전 광고로 실린 적이 있다. 폴란드 보드카 제조사(WODKA VODKA)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빌보드 광고는 보드카 병을 미사일처럼 쏘고 김정은 위원장을 닮은 대역 모델을 이용했다.

같은 해 9월엔 북한 방문도 여러 차례 한 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피스 타치오 광고에 역시 ‘김정은 대역모델’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기사·사진제공=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뉴욕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김정은 광고가 등장에 눈길을 끈다.

“DACA수혜자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신청 하세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석) 공공보건부는 DACA 수혜자 메디케이드 신청과 오바마케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KCS는 “뉴욕주 쿠오모 지사가 DACA 수혜자 중 고용카드(EAD card)의 기간이 만료 되어도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수입 기준에 맞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자들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또 “오바마케어 신청이 1월31일로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한인들이라면 신청할 수 없게된다. 벌금도 2019년까지는 유효하며 한 사람당 695 달러, 또는 소득의 2.5% 중 많은 것을 내게 된다. 뉴욕주는 보험 신청기간을 1월말로 연장한 몇 개 안되는 주에 해당되니 꼭 1월31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의 KCS 공공보건부 김은혜 (212-463-9685)

변비약차

저희 부부의 생활 상비약입니다.
“변비약차는 100% 자연입니다.”

718-300-2777
718-300-3146

후러싱, 퀸즈, 롱아일랜드 지역 배달가능

PREMIER home health care services, inc.

프리미어 홈 케어

-HHA 자격증 있으신분
-무료 간병인 (Home Health Aide)교육

관심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1199유니온 의료보험 혜택있습니다.

* CDPAP 패밀리케어: 환자의 친구, 가족이 직접 돌봐드릴수 있습니다.
* 가족은 환자로 인한 걱정과 시간에서 해방
* 언어의 불편이 없습니다.
* 자격있는 Aide 데려오시는분께 특별 성과금 지급

장기 간호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부모님이나 장애자 가족이 있습니까?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프리미엄 홈 케어가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문의: 김벌리 김
Tel: 212-430-8270
한국어: 718-807-8349

JFK 뉴저지 공항 리무진

11월 5일부터 적용

- JFK-NJ 공항리무진
- VIP 픽업 서비스
- 뉴욕시내관광(개인투어, 버스투어)
- 호텔 예약 및 차량 대여
- 한인택배 JFK지점 (Fedex)
- JFK traveler center

“JFK airport 대한항공 터미널 1층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예약접수	출발
NJ → JFK	펠팩 (킹사우나) 08:50am 출발
JFK → NJ	포트리(H-Mart) 09:00am 출발
낮 비행기 (081, 082)	JFK 11:30~12:00 noon
JFK → NJ	포트리(H-Mart) 도착
	펠팩(킹사우나) 도착
밤 비행기 (085, 086)	NJ → JFK
	펠팩 (킹사우나) 09:50pm 출발
	포트리(H-Mart) 10:00pm 출발
JFK → NJ	JFK 08:30pm~9:00pm
	포트리(H-Mart) 도착
	펠팩(킹사우나) 도착

서둘러 예약이 필수이며, 당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1인당 \$30 (w/TIP)

공항 예약 필수

가죽합선 \$55/2분, \$80/3분, \$105/4분

TALK 카톡 아이디: jfknjshuttle
nyjfklimo@yahoo.com / www.nyjfklimo.com

T: 201.739.8747